

광주글로벌모터스, 전기차 양산 후 이직자 줄었다

7월 이후 퇴사 10명...이전 비해 이직률 감소 생산대수 증가·급여 상승·사회적 임금 등 영향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캐스퍼 전기차 양산 이후 이직하는 직원들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GGM은 1일 올해 상시근로자 62명 가운데 11월 말까지 이직자는 3명(5.8%)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GGM 이

직률 7.4%(46명)와 비교해서는 1.6%p가 감소했다. 전기차가 양산된 7월 이후 이직한 인원은 10명(1.6%)이다. 이처럼 GGM의 이직률이 계속 줄어드는 것은 올해 7월부터 캐스퍼 전기차

양산을 시작, 지난해 3분기(7-9월) 대비 생산 대수가 14% 늘어나면서 근로시간이 증가해 직원들의 급여가 평균 18% 많아져 안정적인 직장으로 자리 잡아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캐스퍼 전기차는 올해 전기차 케즘(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출시 이후 10월까지 3개월간 누적 판매량이 5천대를 돌파했다. 또 10월28일 광양항에서 첫 수출 선적을 한 캐스퍼 전기차는 11월 말까지 23

개국에 4천470대가 출항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GGM의 일감이 크게 늘어 직원들이 예전에 없던 토요일 특근까지 하면서 공장이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다. 또한 광주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회적 임금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매달 지급하고 있는 주거지원비는 지난 7월부터 30만원으로 올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회사 인근에 공

동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해 직원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검진비와 문화바우처 상품권을 지급하고, 교통비 보조 차원에서 통근 버스를 운행 중이며,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해 출퇴근의 접근성을 높여줬다. 이러한 여러 복합적인 혜택 등으로 인해 GGM이 '취·장업 등 일자리 마련'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 지역 청년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관계자는 "산업기반이 취약한 광주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사민정 대 타협으로 탄생한 GG M이 이제는 안정된 직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회사 설립의 근간이자 존속의 기반인 '노사상생발전 협정서'를 준수하면서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해 지역의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재만 기자



홀리데이 분위기 연출하세요 신세계백화점이 연말 홀리데이 시즌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와 특가 상품을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신세계백화점 본점 크리스마스 팝업스토어. <신세계백화점 제공>

보해양조·전남농협, 쌀 5억원 구매 협약 체결

지역 생산 쌀 210t 규모 70만명 하루 3끼 분량

주류 전문기업 보해양조는 지난달 29일 농협경제지주 전남본부와 함께 '광주전남 지역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나주농협 미국종합처리장(RPC)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김중진 보해양조 사장, 편지형 전남농협 본부장, 김태호 지역 및 농협 관계자 등 13여명이 참석했다. (사진) 보해양조는 이날 전남농협으로부터 광주·전남 2개 시군에서 생산된 쌀 210t(10kg 기준 2만1천포)을 구매하기로 했다. 이는 약 70만명이 하루 3끼를 해결할 수 있는 분량으로 5억원이 넘는다.



보해양조는 이번 협약을 발간 삼아 '함께하는 프로젝트'로 지역사회 공헌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74년 동안 지역과 함께 성장해온 기업으로서 쌀 값 불

안정에 따른 지역 농가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이번 협약을 맺게 됐다"며 "쌀 구매가 지역 농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12월 광주·전남 중기 경기전망 여전히 '흐림'

전월비 0.8p ↓, 두 달 연속 하락세... 내수부진 영향

광주·전남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기전망 지수가 두 달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일 "지난 11월14일부터 20일까지 지역 중소기업 217개사를 대상으로 '2024년 12월 광주·전남 중소기업 경기전망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광주·전남의 SBHI(Small Business Health Index·중소기업건강도지수)가 77.2로 전국 평균인 72.6보다는 높았으나 전월(78.0) 대비 0.8포인트(p) 하락했다. SBHI는 100 이상이면 긍정적으로 응

답한 업체가 더 많음을 나타내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한다. 먼저 지역별,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광주는 전월(72.0) 대비 0.8p 상승한 72.8, 전남은 전월(83.6) 대비 2.5p 하락한 81.1로 전망됐다. 제조업은 76.0으로 전월(79.7) 대비 3.7p 하락했고, 비제조업은 78.7로 전월(75.8) 대비 2.9p 상승했다. 항목별로는 내수판매(75.1→72.4), 경상이어(73.4→71.7), 자금사정(70.0→69.6)은 하락했으며, 수출전망(83.3→87.9)은 상승했다.

역계열 추세인 고용수준은 91.3에서 90.8로 소폭 나아졌다. 11월 지역 중소기업의 주된 경영여건은 내수부진이 51.2%로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차지했고, 인건비 상승이 44.2%로 뒤를 이었다. 10월 중소기업의 평균가동률은 70.6로 전월(69.9%) 대비 0.7% 상승했다. 광주는 68.9%로 전월(69.4%) 대비 0.5%p 하락, 전남은 전월(70.4%) 대비 1.9%p 상승한 72.3%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평균가동률은 보유 생산설비의 월간 생산능력대비 해당 월의 평균 생산량 비율을 의미하며, 80% 이상을 정상 가동으로 본다. /정은수 기자

광주은행, 쉐어링점 한겨울쉼터 운영

내년 2월28일까지 123곳...한팩 무료 제공

광주은행은 1일 "겨울 한파에 대비하기 위해 한겨울쉼터를 오는 2025년 2월 28일까지 광주·전남·수도권 지역의 123개 쉐어링점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겨울 기습한파와 대설이 반복되는 변동성이 큰 '롤러코스터 날씨'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은행은 지역민들을 위해 잠시나마 찬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공간과 함께 한팩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은행은 지난 2018년 광주·전남·수도권 영업점을 활용해 생수와 부채를 제공하는 무더위쉼터를 은행권 최

초로 시작했고, 이어 한겨울쉼터까지 지속 운영하며 지역민들에게 계절특화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당행 고객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민을 대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지역

사회에 온기를 전하고 있다. 박성숙 광주은행 영업기획부장은 "한겨울 쉼터는 영업점 운영시간 내에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며 "지역민들이 더욱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은행은 고객 중심 가치를 실천하며 지역 사회에 온기를 더할 수 있도록 사회 공헌 활동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임재만 기자

에너지 절약 및 청정문화 확산 캠페인

겨울철 에너지절약 실천요령

- 3차에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 20°C 유지하기
- 동풍 뚫박이, 커튼으로 틈새 열 손실 줄이기
- 센트 내복, 무릎담요 등 온(溫)맵시 실천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변하기 쉬운 신선제품 처음 그대로 신선도 유지 제품 개발 화제!

포도, 새우, 김치, 깍두기, 과일, 야채, 소고기, 굴비, 치즈, 조개, 생선 등 얼음 아이스팩을 넣어도 변질되기 쉬운 제품 1일이 넘으면 안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젠 걱정 끝!

푸른도깨비 1팩만 넣으면 **5일동안 신선함**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품이 개발되어 신선 제품을 택배로 발송하는 사업 후 여러분의 근심을 덜어드립니다.

1팩을 넣어서 택배를 발송하면 5일동안 변질이 없습니다. 처음 그대로 신선함을 유지시켜 줍니다. 1팩당 500원

푸른도깨비를 택배에 1팩을 동봉하여 발송하면 5일동안 변질없이 처음 그대로 유지됩니다.

공장, 택배물류센터 환영!

무료 신청 택배비 소비자 부담, 본사 메일로 신청 yunanbio@naver.com

전국 시도 총판 모집
대양식품(주)

본사 080-374-5046
기술제휴 | 자연과생명연구소

광주 지사 010-3738-8989
062) 525-7585